

제18차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체육부장	국어국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한정빈	문태석	-	-	백주오	정유승
0	0	공석	공석	X	0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김승호	김자은	정지수	윤상준	김한비	한승기
0	0	0	X	0	0

총원	10	결원	2	현원	8	서기	류하연
----	----	----	---	----	---	----	-----

참관인: 영어영문학과 정은성, 불어불문학과 이태규

1. 활동 보고

<인문대학 학생회>

09/07

- 인문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진행

09/09

- 경영대X사범대X인문대 연합축제 팀장 회의 참석

<국어국문학과>

- 보고 없음

<독일언어문학과>

09/04

- 파티 수요조사

09/07

- 체전 타임테이블 및 룰북 공유
- 체전 종목 예선전 홍보

09/09

- 파티 주문

<불어불문학과>

- 보고 없음

<사학과>

09/04

- 공동학술제 비대면 회의
- 사학과 학생회 회의
- 사학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 답사 세미나
- 개강총회

09/07

- 중앙 사물함 신청 공지

09/10

- 답사 코스 안내 카드뉴스 업로드
- 소프트볼 예선 응원 스토리 업로드

09/11

- 사학과 학생회 회의
- 등꽃제전 점심식사 투표

09/14

- 축구 예선 응원 카드뉴스 업로드

<영어영문학과>

09/04

- 영문과 학생회 회의

09/06

- 런치톡 카드뉴스 업로드

09/08

- 중앙 사물함 신청 및 스티커 부착

09/09

- 런치톡 공지 및 수요조사
- 소프트볼 예선전 안내 공지

<일어일문학과>

- 보고 없음

<중어중문학과>

09/01

- 파티 수요조사

09/02

- 파티 주문

09/04

- 중문과 학생회 회의

09/09

- 중문과 학생회 긴급 회의

<철학과>

- 보고 없음

1-2. 개별 보고

- 보고 내용 없음

2. 심의 및 의결 안건

- 심의 및 의결 안건 없음

3. 논의 안건

1. 체전 관련 공지 사항

가. 소프트볼

- 1) 예선전 진행하면서 무리한 슬라이딩 여러 차례 발생
- 2) 홈 진루할 때 슬라이딩 시 무조건 아웃 처리하기로 결정

나. 발야구

- 1) 발야구 오버런도 소프트볼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 2) 예선은 풋살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본선은 운동장에서 진행 예정

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에 체육교육과에서 운동장 트랙 사용 예정

- 1) 10시부터 12시까지 인문대 학생들이 트랙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 부탁

라. 논의

- 1) 사학과 회장: 발야구 파울 라인은 어떻게 하나?
- 2) 인문대 회장: 룰북에 적혀 있는 대로 부채꼴 모양으로 선을 그을 예정이다.
- 3) 사학과 회장: 발야구도 선을 그어주나?
- 4) 인문대 회장: 그렇다.
- 5) 독문과 회장: 체육교육과가 반대 트랙을 사용하게 하는 건 어려운가?
- 6) 인문대 회장: 체육교육과는 수업이다 보니 운동장 사용 우선순위가 체육교육과에 있어 인문대에서 반대쪽 트랙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
- 7) 사학과 회장: 트랙을 안 쓰는 종목을 먼저 하는 건 안 되나?
- 8) 인문대 회장: 타임테이블을 수정하는 건 인문대학 학생회 내부에서 추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 9) 독문과 회장: 근데 아무리 주의를 주고 막아도 트랙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 10) 사학과 회장: 정문 방향 트랙을 체육교육과에서 사용하는 건 어렵나?
- 11) 인문대 회장: 그러면 체육교육과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

2. 체전 학과별 점심 식사

- 가. 독문과: 1일차 컵밥, 2일차 도시락 (학과실 지원 예정)
- 나. 불문과: 한술 도시락
- 다. 사학과: 1일차 봉구스 상대점, 2일차 각자 해결
- 라. 영문과: 1일차 치킨, 2일차 봉구스
- 마. 중문과: 1일차 한술, 2일차 싸이버거
- 바. 철학과: 자율적으로 점심 식사 예정

4. 기타 안건

1. 체전 열음

가. 행복종합유통

- 1) 덩어리 하나에 15kg, 최소 덩어리 한 개부터 주문 가능
- 2) 10kg 주문 원하면 추가 구매해야 함

나. 일도 열음

- 1) 20kg 15,000원
- 2) 15kg 12,000원
- 3) 10kg 8,000원
- 4) 열음 금액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 추가 입금 필요
 - 가) 견적서 받으면 다시 한번 안내 예정
- 5) 논의
 - 가) 사학과 회장: 언제까지 입금하면 되나?
 - 나) 인문대 회장: 인운위 회의 이후 견적서를 받을 예정이고 내일 구매할 예정이다.
 - 다) 사학과 회장: 학생회비 계좌로 보내면 되나?
 - 라) 인문대 회장: 그렇다. 입금할 때 입금자명을 학과+체전+열음으로 변경해서 보내달라.

2. 체전 심판

가. 농구

- 1) 농구 동아리에서 2명 섭외

나. 축구

- 1) 체육교육과에서 2명 섭외

- 다. 심판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축구와 농구 두 종목에 반으로 나눠서 드릴 예정
- 라. 체전 부심을 체육부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함

3. 연합축제 카드 결제

- 가.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8개 학과 조교 선생님들께서 모두 지원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답변
- 나. 각 학과 문의

- 1) 일부 학과는 안 된다는 답변 받음
- 2) 조교 선생님들 다시 설득 후 결론이 나면 다시 안내 예정

다. 논의

- 1) 사학과 회장: 현금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발전 기금이 있는 경우에만 들었다. 대부분의 학과는 실물 카드로만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 2) 인문대 회장: 그러면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한 건가?
- 3) 사학과 회장: 그렇다고 들었다. 인터넷 결제도 안 된다고 들었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다.
- 4) 인문대 회장: 저희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입학대회 예산안에 적혀있던 예비비를 충원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최대한 학생회비에 큰 지출이 없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겠다.

4. 연합축제 위치 변경

가. 월요일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부터 무대 설치 예정

나. 부스도 경영대와 진리관 사이에 위치될 예정

5. 천막 개수

가. 천막 부족한 과

- 1)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추가로 1개 대여해야 함

6. 체전 타임테이블

가. 논의

- 1) 영문과 회장: 체육부장들은 8시까지 운동장으로 오면 되나?
- 2) 인문대 회장: 그렇게까지 일찍 안 와도 될 것 같다. 천막 설치하는 빠를수록 좋으나 8시부터 나오실 필요는 없다. 대신 8시 30분까지는 천막 설치 마무리해 달라.
- 3) 사학과 회장: 8시 40분까지는 어려운가?
- 4) 인문대 회장: 8시 30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신 40분까지 와도 괜찮은지는 체전 TF와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 참여하시는 학과 학생들도 9시까지는 오셔야 한다.
- 5) 독문과 회장: 8시 40분까지 와도 괜찮은지 추가로 논의 후에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공지해 줄 수 있나?
- 6) 인문대 회장: 어디로 공지해 주는 것이 좋은가?
- 7) 영문과 회장: 카톡에 올려달라.
- 8) 인문대 회장: 그렇게 하겠다.
- 9) 독문과 회장: 피구는 지금 대진표까지 포함된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축구 등도 끝나고 올려달라.
- 10) 인문대 회장: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다.
- 11) 사학과 회장: 마지막 예선전이 언제인가?

- 12) 인문대 회장: 아직 예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과가 있다. 체전 당일 오전까지 예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13) 사학과 회장: 예선전 결과가 전부 나와야 1일차 타임테이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은 과 남·여 경기도 최대한 안 겹치게 타임테이블 짜 주셨으면 좋겠다.
- 14) 인문대 회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보내주신 참가자 명단 토대로 결강사유서 제출 완료했다. 명단 체크도 모바일 학생증을 보고 재학 중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참가자 명단에 없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는 가능하나 결강사유서 발급이 어렵다. 이 점은 미리 공지 부탁드립니다.
- 15) 사학과 회장: 경기 명단에 있으면 그날 하루 모든 수업의 결강사유서가 나오나?
- 16) 인문대 회장: 그렇다.